

고흥군 임란 승전 보고서 '첩보서목' 특별전

당시 흥양 현감 최희량이 써
7월 22일까지 분청박물관
관련 유물 70여점도 전시



임진왜란 당시 전쟁 승리의 기록인 '임란첩보서목' 특별전시회가 지난 31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관했다. <고흥군 제공>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임진왜란 때의 선조들의 고통과 전쟁 승리의 감동을 되새기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다.

고흥군은 임진왜란 당시 흥양(현 고흥군)에서 있었던 전쟁 승리의 기록인 '임란첩보서목' 특별전시를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7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전시에는 무속공 최희량이 흥양현감으로 재임하면서 상관인 관찰사 황신과 통제사 이순신에게 보낸 보고서인 '임란첩보서목'과 관련 유물 70여점이 전시된다.

최희량(1560~1651년)은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1597년 흥양현감에 임명되어 명량해전에도 참전해 공을 세웠으며 이듬해 1598년(선조 31년) 3월부터 7월까지의 현재의 고흥인 흥양 침산 등지에서 일본군

을 격파하기도 했다. 이 때 흥양 지역은 일본군과 조선군이 대치한 최전선으로 그곳의 장수로서 크게 활약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전선(戰線)과 병기를 만들어 조선 수군의 전력 증강에도 크게 기여했다.

흥양현감 최희량이 쓴 '임란첩보서목'은 보물 제660호로 '임진왜란 당시 승전을 기록한 보고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승전 이외에도 지금의 고흥인 흥양현에서 만

든 전선과 물품 책이 기록돼 있다.

정유재란 초기 무너진 조선 수군의 재건에는 전선과 무기의 제조가 필수적이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선과 무기를 짧은 기간 내 제작한 것에서 최희량의 지도력과 흥양현 지역민의 헌신을 엿볼 수 있다.

'임란첩보서목'은 전시 기간내 유물 보호를 위해 일주일간 특별 전시될 예정이며 임란첩보서목과 함께 보물로 지정된



정유재란 당시 최희량이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 쓴 문서인 최희량임란첩보서목. 보물 제660호. <진주박물관 소장>

최희량의 관직 임명장과 그가 현감으로 활약했던 흥양현의 수군진 관련 유물들이 전시된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흥양현감 최희량의 삶과 공적 뿐 아니라 흥양현의 역사적 중요성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며 특히 이순신 장군과 함께 목숨을 잃을 각오로 전투에 임했던 선조들의 삶과 행적이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유치원 원생들이 친환경쌀이 생산될 논에서 모심기 체험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어린이 쌀 생산 체험 프로그램 진행

곡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의 생산 과정을 지역 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곡성군은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미실라과 곡성유치원이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교육 체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쌀 생산 과정을 연간 체험활동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따라 곡성유치원 원생들은 자연생태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쌀 생육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모내기체험 이후 6월에는 생태관찰을 하고 10월에는 추수체험을 하는 등 1년 동안 직접 체험하고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지난 30일 실시한 손 모내기 체험은 이동현씨가 우리가 먹는 쌀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설명했으며 모내기 체험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를 심어보는 경험을 아이들에게 제공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보성 장도 '휴가철 찾고 싶은 33섬' 선정

보성군 별교읍 '장도'가 '2018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미지의 섬'으로 선정됐다.

4일 보성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섬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섬·관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가족과 단체 단위 관광객의 취향을 고려해 놀섬, 실섬, 맛섬, 미지의 섬, 가기 힘든 섬 등 5가지 테마로 33개의 섬을 선정했다. 풍경과 자연경관이 아름답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섬인 '미지의 섬'으로 선정된 장도는 보성군의 유일한 유인도이다.

특히 섬의 형태가 노루처럼 생겨 '장도'라고 불리고 있으며 파사르 해안보존 습지로 지정된 풍요로운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벌교 꼬막의 약 80%가 생산되고 꼬막 외에 낙지와 굴, 바지락 등 풍부한 해산물이 가득하다.

군은 지난 2015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도에 2020년까지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게스트하우스와 마을식당, 탐방로 및 꽃길 조성 등 매력 넘치는 관광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휴가철 섬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장도의 관광인프라 조성과 천혜의 자연경관 보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윤성 기자 kim0686@

습지로 지정된 풍요로운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벌교 꼬막의 약 80%가 생산되고 꼬막 외에 낙지와 굴, 바지락 등 풍부한 해산물이 가득하다.

군은 지난 2015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도에 2020년까지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게스트하우스와 마을식당, 탐방로 및 꽃길 조성 등 매력 넘치는 관광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휴가철 섬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장도의 관광인프라 조성

보성군 학교급식소 32곳 식중독예방 점검

보성군은 최근 지역 학교급식소 32곳을 대상으로 식중독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음식물 관리 소홀 등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서다.

군은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2개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관리 실태 ▲식품 원재료 적정성 및 보관 관리실태 ▲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시정조치 했으며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와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성=김윤성 기자 kjkim@kwangju.co.kr

구례군 성공사업가·청년사업가 멘토-멘티 결연

아이템 발굴 등 창업활동 도움

구례군은 최근 구례생명체험학교에서 성공한 사업가와 예비 청년사업가를 멘토-멘티로 결연하는 행사(사진)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연행사는 지역발전 선도 사업가 발굴을 위해 모집한 9명의 예비 사업가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공한 사업가들을 멘토로 매칭해 창업아이템 발굴부터 사업화 시행까지 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구례군이 위촉한 멘토는 지리산자연발상 상영문 대표와 맘스터치 전남지사 박상현 지사장, 지리산피아골식용염농법인 김미선 대표, 구례 명물택시 기사 임세웅씨, 지리산씨협동조합 임현수 대표, 그리울푸드영농조합법인 이종현 대표, 구례육묘장 최근범 대표 등 총 7명이다.



군은 이번 결연행사가 멘토-멘티 서로가 상호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고 향후 정기적인 강의와 면담, 사업 현장 방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군은 지역 산업 구조상 요식업 위주의 영세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청년들의 진취적인 창업 시도가 크게 부족했다"며 "예비 청년사업가들이 창업에 성공하고 좋은 본보기가 되

는 창업으로 이어지고 구례가 미래의 땅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예비 청년사업가 9명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전문 창업교육을 하고 연말까지 관공서 등 다양한 근무기회를 주는 등 군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1792㎡ 규모 구례목재문화체험장 개장

다양한 목재 체험을 할 수 있는 구례목재문화체험장이 문을 열었다.

4일 구례군에 따르면 간전면에 들어선 목재문화체험장은 간전면 간전중앙로 601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면적 1792㎡

규모로 개장해 운영에 들어갔다.

2014년 착공했으며 총 사업비 57억원이 투입됐다. 체험장 1층에는 목공예공방·목공예체험장·작은도서관, 2층에는 전시관·전시실·정보교육실 등으로 구성됐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연필꽂이와 서랍장, 다용도 수납장 등을, 유아 체험자들은 동물자동차, 손거울, 나무목걸이, 열쇠고리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체험료는 1인당 최소 500원부터 최대 2000원까지이며 재료비는 별도로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